

세계종교문화축제, 내일 도내서 열려

24일까지 전주 등 5개 시·군서...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참여... 교황청 최초 서신 첫 공개

타 종교와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가 내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등 도내 5개 시·군서 열린다. <본보 9월9일자 12면>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참여하는 올해 축제는 종교문화마당(음식, 음악, 영화, 복식 등)과 종교열린마당 등 4대 중단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특히 국외초청인사인 유네스코 에드아르 마토코 사무총장보가 참여한 가운데 4대 중단이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를 주제로 함께하는 세계유일의 축제를 연다.

4대 종교는 각 종교의 공연, 성물과 음식,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날 마당에서는 세계종교문화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신교 관소리과 원불교 교무밴드, 불교 스님의 색소폰 연주, 천주교 중창, 4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또 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7시(22일 오후 8시) 중남문에서 펼쳐지는 종교열린마당은 종교별 특색 있는 야외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제 21일 '평화의 날'에는 천주교에서 '남이시여 사람이시여' 공연을 진



추석명절 재난관리 현장점검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가졌다.

경북 경주 규모 5.8 지진발생 및 북 핵실험과 관련, 송하진 도지사가 최근 전주 다가대피소와 전주 시외버스공영터미널에서 건축, 소방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추석연휴 재난

행하고 22일 '자비의 날'에는 불교의 '강릉 관노 가면극'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23일 '사랑의 날'에는 개신교의 '뮤지컬 문준경', 24일 '은혜의 날'에는 원불교의 '백년 꽃이 활짝 피었네' 공연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종교문화마당은 일종의 종교문화엑스포와 같이 각각의 종교와 의료·교육·여성·인권·과학·문학·성물·음식·복식·음악·미술·건축·영화 등 종교 속에 녹아 있는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며

진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남문광장에서는 4대 종교 관련 유품들이 전시된다.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5개 시·군에 분포된 종교관련 유적지와 종교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이웃 종교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탐방 참여자는 전주한옥마을 투어·전북도 종교문화탐방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교황청에서

한국에 보낸 최초의 서신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이와 함께 21일 오후 4시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민'을 주제로 한 세계종교포럼이 열린다.

도 관계자는 "개막식전 행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천사의집, 임마누엘센터, 사랑의보금자리, 디딤돌 청소년 등과 함께하는 타악 거리행렬 '천사의 북소리'가 한옥마을일대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 확대

개인 2억→5억, 법인 5억→20억... 청년농에 1년 무이자

전북도가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농민들의 신규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내달부터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돈 버는 농업 실현과 농업의 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자금지원을 추천해 주고 용자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농어민이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영농의지는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농어업인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정읍 덕두 영농조합법인은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의 수매자금을 용자 받아 잡곡을 가공 판매 140억원의 연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지평선명품사업단(대표 이대훈)은 로컬랜드를 운영하면서 포도수매(1만톤) 자금 3억원을 용자받아 외인을 생산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6억

원의 연매출이 기대된다.

이처럼 전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1993년 조성된 이래 그간 1,567억원을 용자 추천해 농민들의 소득기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종전 시설·수매자금으로 개인 2억, 법인은 5억을 용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폭락에 의한 수매자금이 대하어는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어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농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 용자대출을 적용할 계획으로 청년층이 절대 부족한 농업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번 지원자금 지원 폭 확대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촌지역 청년층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추석 119신고 800여건 증가

추석연휴기간 119신고 건수가 평소 대비 7배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연휴기간 당직병·의원 및 약국 1,730개소에 대해 도민에게 안내해 주는 등 추석연휴 1일 1,000여건을 안내하였다.

이는 평소 1일 150여건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치다. 실제 소방방곡은 연휴기간 119구급상황관리사가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요령 등을 지도하게 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기전대 등 3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8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폭염으로 벌집이 많아 벌집제거가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추석연휴 기간 벌집제거요청이 499건으로 전년 360건보다 39% 증가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FTA피해보전직불금 1122ha 신청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대상 2569건 접수... 11월 중 지급 예정

올해 FTA피해를 가장 많이 품목은 노지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시설포도 등 피해를 입은 품목 재배농가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결과, 2,569건에 1,122ha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 입은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 대상이다.

피해신고 집계 결과 노지포도가 876건에 406ha로 가장 많고, 시설포도 364ha이며 블루베리 345ha 순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이 411ha로 가장 많고, 김제 224ha, 무주 102ha, 순창

98ha 순으로 나타났다.

남원의 경우 시설포도신청은 300ha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또한, 폐업지원사업 신청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에 877건, 376ha로 나타났다.

폐업지원사업은 FTA협정으로 재배를 계속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 폐업을 지원하여 타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사업이다.

품목별로는 블루베리가 235ha로 가장 많고 시설포도와 노지포도가 각각 85ha, 56ha이며 블루베리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외국산 블루베리가 이렇게 많이 폐업을 신청 이유는 순창, 고창 등에서 5년 전부터 소득유망작물로 집중 지

원했지만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등의 배류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농가 지구력 차원에서 작목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현지 확인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10월 중 지급단가가 결정되면 신청농가에게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의 경우 수입과일이 증가되는 추세인데다 국내 소비량 및 소비자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지역 특화전략 품목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지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재정인센티브 342억·특교세 71억 확보

행정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행정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되면서 각종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열악한 전북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6년 중앙부처 평가를 통해 재정인센티브 342억원과 특별교부세 71억원을 확보해 도정 핵심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도는 중앙부처 행정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기재부 복권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고금액인 93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인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특예산 인센티브 236억원을 확보해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삼각농정과 토질관광, 탄소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지자체 합동평가와 규제개혁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130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소통강화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한 특별교부세 71억원을 확보해 재단안정 등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부속재원(25억원), ▲지방도 643호선 정비(5억원), ▲가름 및 폭염관리 대책(7억원), ▲정읍 등룡육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15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도는 철도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익산IC~금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재정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해예방 등 현안사업을 추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